

李 정부 첫 장관 임명 배경훈, 민간주도 R&D 생태계 혁신

(과기정통부 장관)

R&D 혁신 위한 연구현장 간담회 오는 9월 중 혁신방안 수립 계획 권역별 현장 방문해 직접 소통 나서

정부가 오는 9월 민간 주도의 연구개발(R&D) 생태계 혁신방안 수립을 앞두고 실제 연구현장 의견 수렴에 나선다. 지역별 연구현장과의 간담회를 진행하고 민간자문단을 꾸려 R&D 혁신방안 논의도 진행한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R&D 혁신에 대한 국민 한 명 한 명의 의견도 청취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6일 대전 기초과학연구원(IBS)에서 'R&D 혁신을 위한 연구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세종대 물리학과 천승현 교수(발제)를 비롯해 신진·중견 연구자 및 학생연구자 30여명이 참석해 새 정부의 기초연구 정책 및 R&D 혁신에 대한 자유토론을 진행했다. 이 자리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뉴스1

에는 하정우 대통령실 AI미래기획 수석도 함께했다.

과기정통부는 R&D 투자 확대와 함께 투자의 질과 효율성을 함께 높일 수 있도록 '연구개발 생태계 혁신방안(가칭)'을 9월 중 수립할 계획이다. 그 과정에서 연구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해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그간 여러 차례 R&D 혁신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마련됐으나 여전히 연구현장에서는 문제지적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정부 주도의 공급자적인 시각에서의 R&D 기획 및 관리, 부정행위 방지를 명목으로 한 과도한 행정 부담, 예측하기 어렵고 불안정한 과제 중심 재정지원 등에 대한 지적이 많다.

정부는 이같은 문제점 개선을 위해 노력해왔으나 연구현장의 체감도는 낮은 실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를 탈피하기 위해 이번 혁신방안은 문제 발굴부터 원인 진단, 대안 도출의 전 과정에서 민간이 중심이 돼 현장과 직접 소통하여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는 이번 IBS 현장방문 및 간담회를 첫 시작으로, 권역별로 여러 연구현장을 주기적으로 방문해 지역별·분야별 목소리를 균형있게 청취할 계획이다. 또한 산학연의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자문단(가칭 진짜R&D 추진위원회)을 구성하고 혁신방안에 대한 논의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온라인으로도 연구자 및 일반 국민 누구나 편리하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이날부터 국민 소통 플랫폼 '모두의R&D'를 개통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기존 단방향으로만 정책을 제안하던 방식의 한계를 넘

어 국민이 제안한 의견을 국민 스스로 다양한 토론을 통해 구체화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목표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는 "그간 정부 주도의 R&D 추진에서 탈피해 '무엇을 연구할 것인가?'의 단계부터 연구자들이 직접 참여하는 민간 주도의 R&D 기획·투자·평가 체계로의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다양한 방식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연구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배경훈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해 1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식을 갖고 본격 임기를 시작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는 전날 배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여야합의로 채택했다. 새 정부 초대 장관 후보자들 가운데 국회에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된 것은 배 후보자가 처음이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LG CNS, AX 기반 곤충 스마트팩토리팜 구축

연간 약 700톤 밀웬 생산 계획 사육 단계별 생산 공정 자동화 곤충 품질·생산량 극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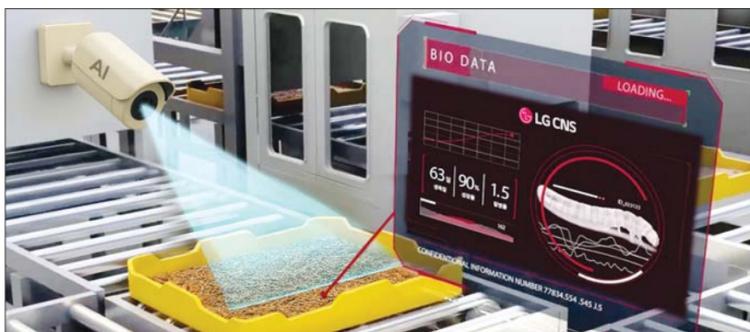
LG CNS가 제조 AX(인공지능 전환) 기술을 기반으로 곤충 스마트팩토리팜 구축 사업에 나선다.

LG CNS는 16일 강원특별자치도가 주최한 곤충산업 거점단지 착공식에서 곤충 스마트팩토리팜 구축 사업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강원 춘천에 조성되는 곤충산업 거점 단지는 밀웬 등의 곤충을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첨단 스마트팩토리팜이다. 이 사업에서 LG CNS는 ▲AX 기반 생산 운영 관리·통합 관제 시스템 ▲AI 생육 관리 시스템 ▲곤충 사육·사료 제조·환경 제어 설비 자동화 등을 맡는다.

회사는 올 연말까지 곤충 스마트팩토리팜을 만들어 연간 약 700톤의 밀웬을 생산할 수 있는 대규모 자동화 양산 체계를 구현한다는 계획이다.

LG CNS는 "AX 기반의 생산 운영 관리·통합 관제 시스템으로 최적의 곤충 생산 체계를 마련할 것"이라며 "사육·검사·이송·환경설비 등 전 생산 공정



LG CNS가 미래 신성장 기술테크 분야로 떠오르는 곤충산업의 생산 공정을 디지털·자동화한다. /LG CNS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분석해 최적의 생육 환경과 가동 조건을 도출하고, 사육 단계별 생산 공정을 자동화해 무중단 스마트팩토리팜을 구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회사는 전체 곤충 생산 주기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 제어해 운영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다.

특히 LG CNS는 AI 생육 관리 시스템으로 곤충의 품질과 생산량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병들거나 죽은 곤충을 일일이 수작업으로 골라내다 보니 관리 개체 수가 수천, 수만 마리로 늘어날 경우 품질 관리가 어려워 대량 사육에 한계가 있었다.

LG CNS는 비전 AI 기술로 곤충의 성장 단계를 모니터링해 최적의 출하 시점을 산출하고, 곤충의 색상, 움직임 등을 실시간으로 분석해 불량 개체를 판별한다.

LG CNS는 "강원특별자치도와 함께 이번 사업을 통해 미래 곤충산업을 선도하는 'K-곤충 표준 모델'을 제시할 것"이라며 "곤충 사육 플랫폼을 전면 국산화하고, 코드, 용어, 지표 등 모든 제조 기준 정보를 표준화로 통합 관리해 향후 공장 신설 시 유연한 확장이 가능하도록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hjk1@

LG U+, AI 스팸차단 건수 1.4배 늘어

(5개월간)

스팸문자 수신 신고건수도 65% ↓ 차단해야 할 문구 상시 업데이트

LG유플러스는 인공지능(AI) 기반 스팸 차단 시스템 고도화 결과 스팸 차단 건수가 5개월 만에 약 1.4배 증가했다고 16일 밝혔다.

미끼 문자는 보이스피싱·스미싱 범죄자들이 공공기관이나 금융사·택배사 등을 사칭해 악성 인터넷주소(URL)를 누르게 하거나 가족으로 위장해 송금을

유도한다. 최근 '민생회복 소비쿠폰 안내' 등 관심이 높은 내용으로 악성 애플리케이션(앱) 설치를 유도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LG유플러스는 AI 기반 대내외 데이터 통합 분석·대응 체계인 고객피해방지 분석시스템에 미끼 문자를 구별하고,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솔루션을 도입했다. 먼저 AI에 누적된 스팸 문자 데이터와 최신 트렌드를 학습시켜 차단해야 할 문구를 상시 업데이트하고 있다.

동시에 문자 발신번호가 조작됐는지, 해외에서 보냈는지 등을 분석해 차단 여부를 판단한다. 예를 들어 '카드 배송'이라는 키워드가 포함된 문자를 분석했을 때 발신번호가 조작되고 해외에서 보냈다면 스팸으로 걸러진다.

이 솔루션은 지난 2월부터 적용됐다. 도입 전인 1월과 비교했을 때 지난 달 기준 스팸 문자 차단건수가 약 1.4배 늘었다. 실제로, 고객의 스팸문자 수신 신고 건수도 같은 기간 약 65%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시간이 갈수록 AI 성능도 개선되면서 AI의 실시간 자동 차단 비율도 8배 늘어났다. /김서현 기자

KT, 미디어 플랫폼 협력으로 시너지 확대

KT스카이라이프-KT HCN에 고도화된 셋톱박스 공급

KT가 그룹사 간 미디어 플랫폼 기술 협력을 강화하며 미디어부문 시너지 확대에 나섰다"고 16일 밝혔다.

KT는 위성방송사업자인 KT스카이라이프와 케이블TV 사업자 KT HCN에 인터넷 전송 방식 기반의 고도화된 셋톱박스를 공급했다. 이번 협력을 통해 KT스카이라이프와 KT HCN은 보다 저렴한 가격에 고화질 방송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으며, 기술 전환을 바탕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위성방송 및 케이블TV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도모할 계획이다.

KT스카이라이프와 KT HCN은 이

번에 각각 '아이핏TV(ipit TV)'라는 명칭의 프리미엄 방송 서비스를 출시했다. 이 서비스는 기존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IPTV) 수준의 콘텐츠와 기능을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KT의 지니TV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동영상서비스(OTT) 콘텐츠, 인공지능 기반 추천 및 검색, 모바일 연동 시청, 직관적인 사용자 화면 등이 그대로 적용됐다. 셋톱박스도 한층 작고 가벼워졌으며, 대기 전력 소모가 줄고 부팅과 채널 전환 속도도 빨라졌다.

기존 KT스카이라이프와 KT HCN 가입자는 각사 고객센터나 매장을 통해 아이핏TV를 신청하면 IPTV 수준의 방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김서현 기자



KT 기술혁신부문 Decision Intelligence Lab장 이세정 상무가 K 데이터 얼라이언스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모습. /KT

KT, 7개 기관과 '韓 AI' 데이터 협력 강화

'K 데이터 얼라이언스' 협약식

KT는 16일 서울 송파구 소피텔 엠베서더 서울에서 'K 데이터 얼라이언스' 협약식을 열고, 국내 주요 기관과 한국형 인공지능(AI)을 위한 데이터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날 협약에는 KT를 비롯해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두산디지털이노베이션, 아이스크림에듀, 중앙일보, 한국교육방송공사(EBS), 한글학회 등 총 7개 기관이 참여했다.

KT는 얼라이언스 주관사로서, 한국어 고유 표현과 사회·문화적 맥락을 반영할 수 있는 고품질 데이터 구축이 AI 경쟁력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각 기관은 보유한 데이터를 가공·구조화해 AI 학습에 활용하고, 상호 협력으로 데이터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

참여 기관들은 향후 ▲한국형 AI용 데이터 구축 ▲도메인별 AI 활용 사례 개발 ▲성과 공유 및 대외 확산 ▲인문·사회 분야 연구 등을 공동 추진할 예정이다. /김서현 기자